

‘식품산업 육성’ 농림부가 주도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여성 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들을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안 명칭에도 ‘식품산업’을 추가했다.

제3조 제9호, 제9조, 제45~47조 등을 통해 농산물생산·자연환경보호·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명시하고 이같은 기능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농업, 농촌 특성에 맞도록 농촌 경제 활성화, 지역간 소득균형, 농촌지역 산업 진흥, 농촌지역 교육·주거 환경 등 복지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다 설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한 제14조도 눈에 띈다.

잡지는 예금·보험금

1조원 돌파

은행과 보험·증권사들에 잠겨있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휴면예금·보험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금융회사 및 금융 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 금융권의 휴면예금·보험금은 1조557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의 휴면예금·보험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업권 중 휴면예금·보험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보험업권으로 5천10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말의 4천268억원에 비해 4개월만에 20%가 늘어난 만큼 가파른 증가세다.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보험금 미납으로 자동 실효된 보험금 등이 해당한다.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3천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말의 3천813억원에 비해 4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은행들의 휴면예금 반환노력 역시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올 김장비용 15만원

4인가족 기준... 작년보다 35% 더 들어

광주·전남지역의 올해 김장비용은 지난해에 비해 35% 정도 늘어나고 시기도 1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현대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최근 광주점에서 유통되거나 판매 중인 배추와 무, 양념류 등 김장 재료의 가격을 토대로 올해 4인 기준 김장비용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 11만원보다 35%가량 오른 평균 15만원으로 예상됐다.

김장비용이 이처럼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지난해 같은 시기 한달에 2천원하던 배추가 올해는 1만원으로 치솟는 등 주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값이 5배 가량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김장 재료 가격의 폭등에 따라 올해 김장량도 지난해 50포기보다 15포기가 적은 평균 35포기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김장시기도 주부들이 무나 배추값을 관망하면서 늦출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보다 1주일 정도 늦은 11월 말~12월 초순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배추 재배능력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9월 잦은 비로 근채류가 손상되면서 출하량도 감소해 가격이 급등, 김장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채소류의 가격 폭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장비용이 35%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장비용이 35%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장비용이 35%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장비용이 35%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부 65% “김치 못 담가요”

오픈마켓 사이트 옥션은 지난 1~19일 회원 및 자사 사이트를 방문한 주부 7천138명을 상대로 김치를 담글 줄 아는지를 묻는 결과 응답자의 65%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73%, 30대는 66%, 40대는 50%가 김치를 담글 줄 모른다고 답했다. 김치를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3%가 ‘사먹는다’고 답했고 ‘친정이나 시장에서 가져다 먹는다’(32%), ‘직접 담가 먹는다’(2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치를 사먹는다는 응답자는 인터넷쇼핑몰(30%), 할인점(28%), 재래시장(23%), 홈쇼핑(13%)과 백화점(5%) 등에서 주로 김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오래 일하지만 생산성 낮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오래 일하지만 생산성은 낮아 열심히 보다는 똑똑하게 일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성공하는 기업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중 주당 근로시간이 54시간을 넘는 직장인은 약 35%인 838만3천명에 달해, 전체 직장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OEC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노동생산성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30개 회원국 중 23위로 평균 근로시간은 많지만 그만큼 성과는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개인 측면에서 지속되는 야근 등 과도한 업무는 개인생활을 등한시 하게 만들어 일과 삶의 균형을 해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새로운 지식의 학습이나 아이디어 도출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기업 측면에서도 적은 인력과 근무시간을 투입하면서도 효과적이거나 똑똑하게 일해야 높은 생산성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과거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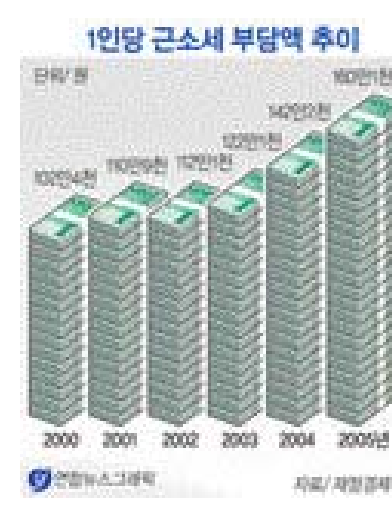
1인당 근소세 5년새 56% ↑

2005년 기준 160만원 부담

2005년 기준 1인당 근소세 부담은 160만1천원으로 2000년 이후 5년새 5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자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2005년 총 근소세 징수액은 9조7천782억원, 납세자는 610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근소세 징수액은 근소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160만1천원이었다.

이는 2000년 102만4천원에 비해 5년새 56.4% 늘어난 수치로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2001년 110만9천원, 2002년 112만1천원, 2003년 122만1천원, 2004년 142만2천원에 이어 2005년에는 160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근소세 징수액과 납세자 수는 ▲2000년 6조770억원, 593만4천명 ▲2001년 7조1천460억원, 644만6천명 ▲2002년 6조9천334억원, 618만7천명 ▲2003년 7조6천412억원, 625만8천명 ▲2004년 8조9천131억원, 626만8천명 등이었다.



‘성공 면접’ 이미지 메이킹

23일 서울 아이웨어 스페이스 ALO(알로) 신촌점에서 열린 ‘성공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강좌’에서 모델들이 각 직종별 면접에 어울리는 다양한 스타일의 안경을 선보이고 있다. ALO(알로)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성공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를 실시, 구직자들의 호감 이미지 꾸미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삼성전자 ‘황의 법칙’은 계속된다

황창규 사장, 8년 연속 반도체 메모리 기술력 입증 실적부담 털고 세계 IT 업계에 다시 한번 존재 확인

삼성전자가 23일 낸드플래시의 메모리 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을 발표한 가운데, 황의 법칙의 주인공인 황창규(사진) 사장의 그룹 내 입지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가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이라는 한 해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황 사장에게 톨로코스터를 타듯 고풍적이었던 ‘고난의 해’로 기억될 만하다.

1조원을 거머쥔 넘기던 반도체총괄은 2·4분기에 영업이익이 3천300억원까지 근두박박치고 말았다. 이에 더해 8월 초에는 반도체 기공 공장 K2 지역에서 초유의 정전사고가 발생해 라인 가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조직·인사 개편 없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말 반도체총괄에 대해 경영진단을 마쳤으나 최근 들어 진단 결과에 따른 인사·조직개편을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황 사장은 올해 설비 투자 금액을 당초 계획보다 1조4천억원이나 늘어난 6조8천억원으로 잡아 그룹의 승인을 받아내 그룹 내 변화없는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황창규 사장은 8년 연속 반도체 메모리 기술력 입증 실적부담 털고 세계 IT 업계에 다시 한번 존재 확인

이와 함께 황 사장은 올해 설비 투자 금액을 당초 계획보다 1조4천억원이나 늘어난 6조8천억원으로 잡아 그룹의 승인을 받아내 그룹 내 변화없는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위탁해 봤더니...

자산운용사 룬살롱 솔파티

펀드결성비용으로 희식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운용사 선정 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자산운용사 2곳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펀드결성비용으로 단란주점, 룬살롱 등에서 회식을 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 11월 말과 2006년 5월 중순에 A자산운용사와 B자산운용사를 각각 SOC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로 뽑은 뒤 이 운용사들이 설립한 사모펀드 2곳에 각각 1천500억 원과 750억 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주점과 룬살롱 회식비용, 기념품 구입비, 연회비용까지도 펀드결성비용(펀드설립비용)으로 처리, 국민연금공단에 상환요청해 받아갔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이 두 자산운용사가 룬살롱과 단란주점에서 지출한 내역을 지난 4월 뒤늦게 확인하고 관련 금액을 환수조치했다. 전 의원은 “이처럼 모럴 해저드가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문제의 자산운용사 중 한 곳에 국민연금공단은 2006년 12월 부동산 펀드 계약을 체결하며 4천 억 원대의 연금자산운용을 추가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제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추가 연금자산 배정을 제한하는 등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윤리적 문제도 함께 점검, 심사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2044년 적자·2060년 고갈

국민연금은 2044년에 연도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추산하면 국민연금은 2044년에 총수입 26조4천960억원, 총지출 26조7천678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선다. 또 2060년에는 적립기금 잔액이 35조3천308억원 적자로 추락하면서 기금 자체가 고갈상태로 빠진다.

2050년 49조9천47억원 등이다.

국민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1조1천271억원, 2020년 1조3천776억원, 2030년 1조9천826억원, 2040년 3조2566억원, 2050년 4조9천141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2조1천47억원, 2015년 6조2천193억원, 2020년 10조5천656억원, 2030년 24조5천693억원, 2040년 36조3천335억원, 2050년 49조9천47억원 등이다.

개미들 3,485억 순매수

코스피 44.17P ↑ ... 전일 하락폭 3분의2 만회

코스피지수가 하루만에 전일 하락폭의 3분의2를 만회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대거 매물을 출회하고 개인만 사는 불안한 수급 조건의 수급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지수는 23일 전일보다 44.17P(2.32%) 상승한 1947.98포인트로 장을 마쳐 사흘만에 반등했다.

뉴욕증시 반등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1,90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개인 매수와 함께 아시아 증시의 상승 소식에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984억원과 1천646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개인은 홀로 매물을 받아내며 3천485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8.87% 급등한 가운데 운수창고업종도 6% 이상 올랐다. 음식료업종도 4.51% 올랐으며 섬유업종, 유통업종 등 내수업종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은행과 전기가스 업종은 하락한 채 장을 마쳤으며 증권 업종도 0.87%라는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8월 20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며 20.10포인트(2.61%) 오른 789.00으로 마감했다.

미국증시가 지난 주말 급락후 하루만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2% 넘는 급등세로 개장한 코스닥은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키워 이틀간의 하락폭을 거의 회복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